

## 동남아 국제결혼 현장 취재

▶ 시리즈 14면

## 오늘 민주-통합신당 합당



베트남으로 신부감을 찾아 온 한국인 신랑들이 지난달 15일 호치민에서 열린 합동 결혼식에서 신부들과의 '백년가약'을 다짐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당국의 단속 강화로 인해 국제결혼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당명 '중도통합민주당' 합의

민주당과 중도통합신당이 4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합당을 공식 선언한다. 양당의 신설합당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새 당의 이름은 '중도통합민주당'이며 박상천-김한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중도통합신당 김한길 대표는 3일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회동, 신설 정당의 지도 체제와 당명, 특정인사 배제론 등 주요 쟁점을 타결하고 합당 절차에 들

어가기로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3시간여에 걸친 회동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4일 오후 정식으로 합당 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창당되는 정당의 이름은 중도통합민주당이며 약칭은 '통합민주당'으로 잠정 합의했다. 박상천-김한길 공동대표 체제하에 최고위원은 6명씩, 중앙위원은 90명씩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세력 배제론에 대한 문구는 '국정 실패를 교훈 삼아 중도개혁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대통합을 적극 추진

한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의 규모는 민주당 13명, 중도통합신당 20명으로 일단 33명으로 시작되지만 민생정치모임에서 2~3명이 합류할 예정인 데다 지난달 민주당과 중도통합신당의 협상이 무산되자 중도통합신당을 뛰쳐나간 이강래 의원 등 5~6명의 의원들도 통합민주당에 동참한다는 계획이어서 전체 의석은 40석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일부 탈당세력이 합류하게 된다면 통합민주당은 50~60석 규모의 정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 '인간시장' 같은 맞선... 불안한 출발

프놈펜 = 최경호기자

"중개업자의 거짓말에 내 운명이 짓밟혔다. 한국사람도 좋은 사람이 많았는데..."

지난달 16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만난 시나(27·가명)씨는 연신 눈물을 흘렸다. 2년간에 걸친 한국 남성과의 결혼생활을 되돌아보니 서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것이다.

시나씨는 지난 1999년 현지 중개업자의 소개로 전남지역의 한 농촌으로 시집을 왔다. 하지만 정신지체 장애인인 남편(43)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못해 2001년 고향인 프놈펜으로 돌아왔

다. 국내 '여성혐타'와 시택 친척집에서 보낸 1년4개월을 제외하면 단 5개월 만의 과정이었다.

시나씨는 "당시 결혼중개업소 사장님은 남편을 유능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며 "시어머니가 남편의 음주와 폭행을 보듯해 '침타'로 데려다 준 뒤에

### 배우자 신상 모른채 4일만에 '매매 결혼' 폭력·괘시 등 고달픈 한국살이...과경 급증

야 결혼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베트남 여성 투영(24·가명)씨는 남편(39)과의 불화로 인해 낙태까지 감수하며 이혼을 선택한 케이스. 투영씨는 지난 2005년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이혼 및 낙태 강요로 인해 10개월간의 결혼 생활을 접고 지난해 호치민으로 돌아와야 했다. 투영씨는 당시 남편의 지나친 감시와 폭행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으며, 결국 이것이 화근

이 돼 결혼에 실패했다.

국제결혼정보업체들의 부실한 결혼 중매관행이 이주여성들의 가슴을 멎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정보업체들의 '자정' 노력 속에서도 무자격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병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상당수 정보업체들은 성혼율을 높이기위해 한국 남성 배우자의 신상에 대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상당수 업체들은 현지에서 일정한 중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채 휴대전화 하나로 영업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잠적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전문업체는 무려 1천여개. 이 가운데 베트남·캄보디아를 대상으로만 280여곳에 달하는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및 개인 중개 등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천개의 업체가 난립해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선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7월 혼인법 개정 이후 국제결혼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hoice@kwangju.co.kr

### 비정규직 임금·근로시간 차별 못한다

7월부터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경조사비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된다. <관련기사 11면>

기간제(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차별시정 제도를 소개한 '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휴가(연차유급휴가, 산전·산후휴가 등),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을 차별할 수 없다. 또 상여금과 교통비, 경조사비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규정돼 있는 항목에서 차별을 둘 수 없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은 차별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철뉴스

### 알림

#### 제 14 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



#### 전국 시·도대표 24개팀 출전 6월 11일~18일까지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주일보사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4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호남 유일의 전국고교야구대회인 무등기에는 지난해 우승팀인 진흥고를 비롯 광주지역 3개팀, 서울5개팀, 경기3개팀, 부산2개팀, 강원2개팀, 여타 시·도 각1개팀이 출전해 고교야구 정상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박진감 넘치는 고교야구의 진수를 보여 줄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대회에 야구팬 여러분의 관심과 뜨거운 성원 바랍니다.

- 주최: 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 주관: 광주광역시야구협회·전라남도야구협회

협찬: 대안외제, 기아타이어즈프로야구단, 의료지원, 푸우리병원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게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360-5000

## 당신이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뉴욕생명 안에 있습니다

162년간 변함없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온 뉴욕생명- 재정적 안정성, 성실성, 인본주의 원칙으로 고객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의 파랑새, 뉴욕생명과 만나세요! 뉴욕생명이 약속하는 행복의 미래와 키스하세요!



보험상담 및 문의전화 062-236-2002

광주지점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9 KT광주정보통신 6층